

| 제 1 주 제 |

## 충청남도 민선5기의 과제와 전망

**배 정 환**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 충청남도 민선5기의 과제와 전망

배 정 환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 I. 서론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재개된 이후 20여년이 흘렀다. 그간 1기 단체장 선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네 차례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경험을 축적해왔다.

지난 90년대와 2000년대 초 지방자치에 대한 주요한 논의 중 하나가 일천한 경험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목적을 실현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역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참여의 문제가 존재해왔다.

그리고 민선 4기를 맞이하여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 실재화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기대를 받았다.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는 5천만 인구규모, 세계 10위권의 경제, 그리고 세계 30위 수준의 삶의 질적 수준을 고려할 때 실질적 자치의 실현과 지방의 특성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6월 또 한번의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5기 민선자치단체를 이끌어갈 자치단체장들을 선출하게 된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주민들의 삶에 대한 요구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4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민선 4기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좋은 정책들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민선5기 출범을 위한 지방선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세종시 수정의 문제, 천안함 침몰에 의한 추도분위기 속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물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의 부재 등이 나타나면서 주민 1인이 8표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각 지역의 현안과제들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민선 5기의 순조로운 출범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주민들의 지방정책의 참여 등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충남의 민선4기 기간동안 충남지역의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에 대한 거시 지표들을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민선5기에서 해결되어야 할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충남의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충남지역의 현안과제를 살펴보고 위해서 충남지역뿐 아니라 16개 시도의 거시경제지표 및 주민 삶과 관련된 지표<sup>1)</sup>를 통하여 충남도의 역점추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한

1) 거시지표는 통계청 및 충청남도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지표자료를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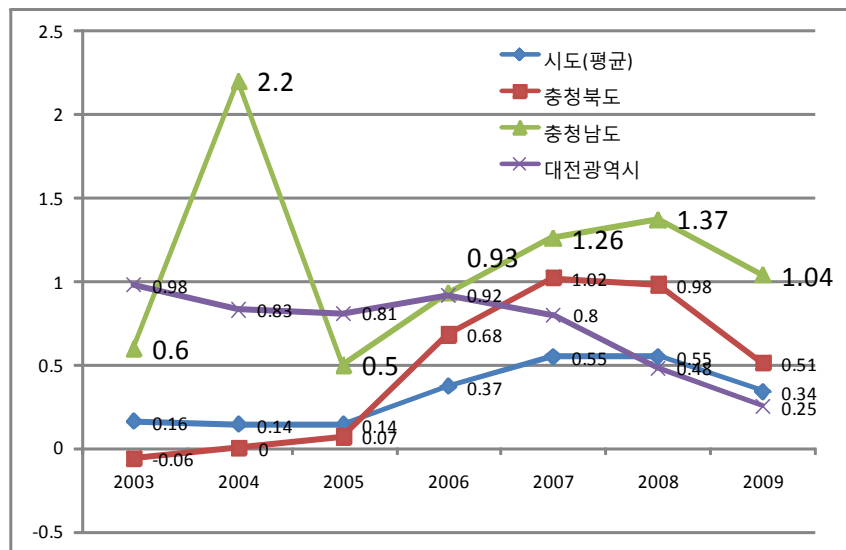
시사점 도출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 그리고 전망을 차례로 논의하고자 한다.

## II. 거시지표를 통한 민선4기 성과와 과제

### 1. 인구 및 생활지표 부문

충남의 최근 인구 증가율은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총인구수는 2,039,24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인구 증가율은 2009년 시도평균 0.34%보다 높은 1.04%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증가율은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준이다.

<그림 1> 충남의 인구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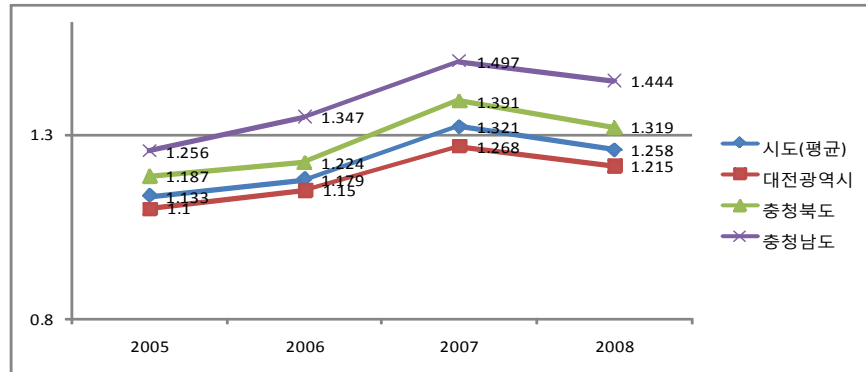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충남의 인구증가는 경제성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1.444명으로 인구 증가의 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외국인의 증가도 눈여겨 볼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는 충남이 9.06명에서 2008년 17.47명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충남의 국제화 수준의 향상 및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남지역의 일반재정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말 약 4조원에 달하는 세입과 3조6천억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자주도는 2009년 현재 72.4%로 전국평균인 75.9%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그림 2&gt; 충남의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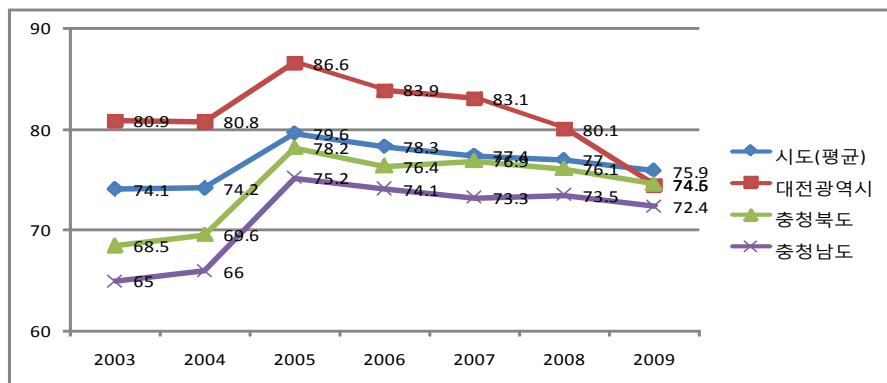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lt;표 1&gt; 충남의 세입 및 세출결산 추이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입결산	3,148,019	3,222,720	3,337,732	3,582,474	3,914,089
세출결산	2,510,267	2,783,270	2,834,021	3,108,717	3,662,842

자료 : 충남도 지방재정공시 2009.

&lt;그림 3&gt; 충남의 재정자주도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충남의 지방채무의 경우 민선4기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지방재정의 악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충남도 실질채무가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청의 이전, 사회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충남의 문화생활 및 체육여건 지표는 문화시설과 도시공원조성면적, 체육시설수 등을 검토하였으나 문화시설의 통계자료가 2007년으로 제한되어 본 연구에서는 2008년까지의 자료가 있는 인구천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과 인구십만명당 체육시설수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lt;표 2&gt; 충남의 지방채무 현황

구 분		채무현황	실질채무	인구수 (내국인)	1인당채무액 (천원)
연 도 별	2004	508,304	125,550	1,953,406	64
	2005	519,752	97,300	1,962,646	49
	2006	601,179	88,230	1,974,433	45
	2007	635,859	106,310	1,995,531	53
	2008	711,189	133,680	2,018,537	66

자료 : 충남도 지방재정공시 2009.

인구십만명당 체육시설수는 2008년 기준으로 충남도가 97.35개로 전국 평균인 104.05개보다 약 7개 정도 모자라는 수치를 보였으며 인근 충청북도 102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전국 하위권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조성 면적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충남의 도시공원 면적은 27.43km<sup>2</sup>로 전국 평균 30.01km<sup>2</sup>보다 적었으며 또한 인근 충북 48.81km<sup>2</sup>, 대전 34.88km<sup>2</sup>보다도 떨어지고 있었다.

## 2. 경제활동 지표부문

충남의 경제활동 지표부분은 우선 경제활동에 따른 지역내총생산(GRDP)과 1인당 지역내 총생산, 고용률, 실업률, 주택가격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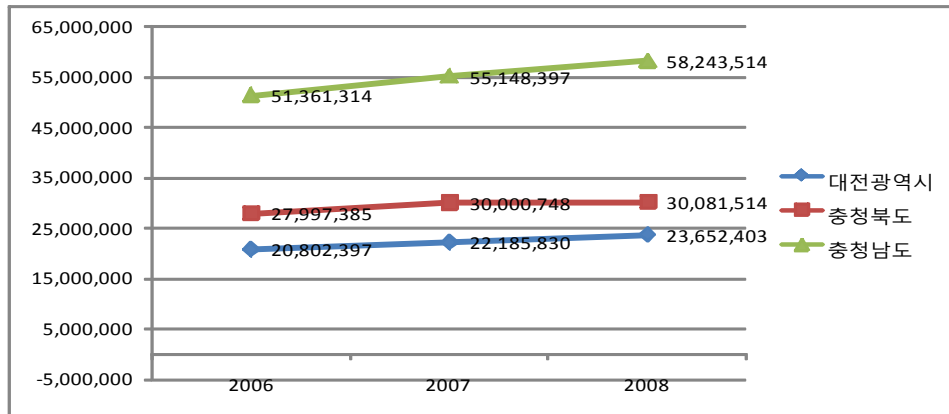
경제활동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각 시도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경제권 차원의 선도산업육성과 광역자치단체별 전략산업육성과 맞물려 있으며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자유치와 기업유치 실적은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각 시도의 주요한 정책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경제활동에 관련된 지표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시사점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충남, 충북, 대전의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2006년 이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GRDP 상승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남에서 발표한 외자유치 누계 5,168억불 및 기업유치 2,918개 등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충남도정운영성과, 2009). 또한 천안 및 아산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털벨리의 LCD 등의 수출호조와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속도와 함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시도 평균 21.97백만원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하면 두 번째 높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lt;그림 4&gt;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의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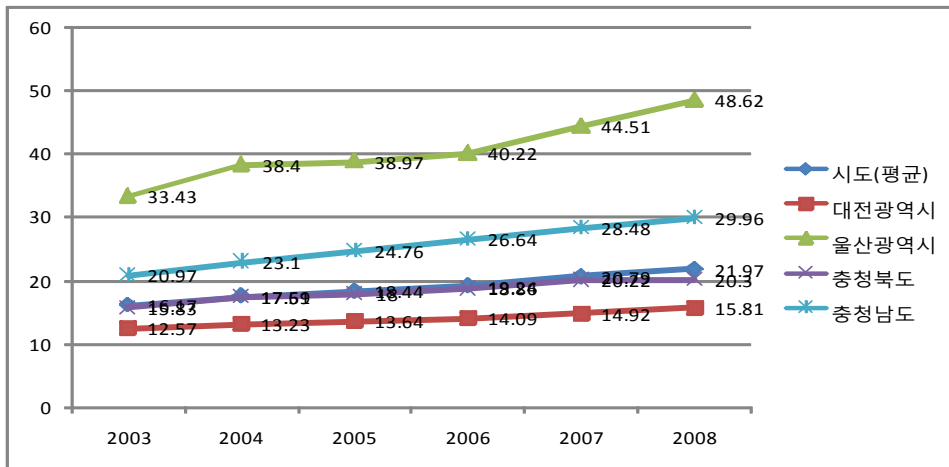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탈, 당해년가격.

&lt;그림 4&gt; 충남 및 기타시도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단위 : 백만원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탈.

충남의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관된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58.6%와 비교하여 충남은 60.5%로 2%정도 높은 수치이며 충북 59.4%, 대전 57.3% 등과도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남의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3%로 충북 2.1%보다는 높았고 경북 2.7%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실업률의 차이는 지역간의 격차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충남의 산업발전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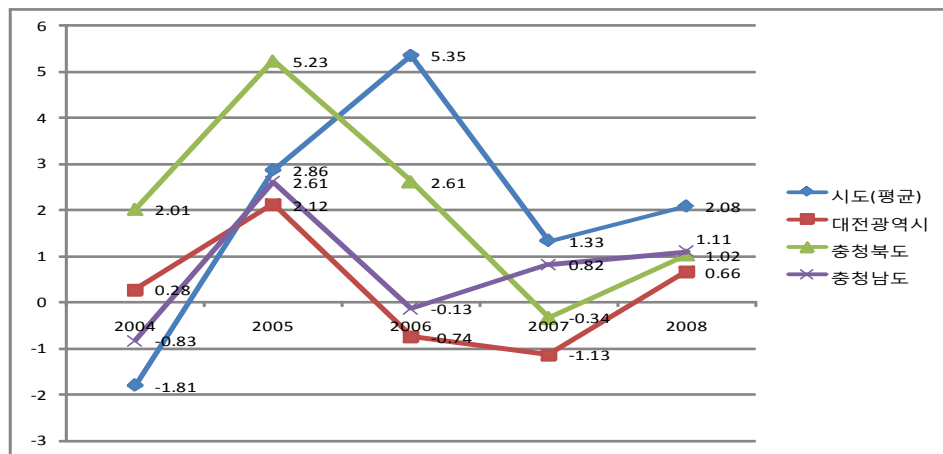
&lt;표 3&gt; 시도별 고용률 추이

시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평균)	59.3	59.8	59.7	59.7	59.8	59.5	58.6
서울특별시	59.2	60.1	60.3	60.1	60.3	59.6	58.1
부산광역시	55.2	55.5	55.7	55.9	55.9	55.1	54.1
대구광역시	57.7	58.7	58.4	57.8	57.2	56.5	56.4
인천광역시	59.1	59.1	58.7	59.1	59.5	59	59
광주광역시	54.9	55.5	56	55.5	56.5	56.3	56.4
대전광역시	57.4	57.2	56	56.3	56.9	57.7	57.3
울산광역시	58.8	59.3	58.6	57.6	58.9	59.5	57.9
경기도	59.7	60.4	60.2	60.3	60.1	60.2	58.9
강원도	57.2	57.8	57.5	58.2	57.7	57.7	57.8
충청북도	57.5	58.3	58.1	58.1	58.5	59.2	59.4
<b>충청남도</b>	<b>61.9</b>	<b>63.1</b>	<b>62.7</b>	<b>63.8</b>	<b>64.5</b>	<b>62.2</b>	<b>60.5</b>
전라북도	57.4	56.9	57.3	58	59	58.7	58.2
전라남도	63.7	63.1	63.6	63.4	63.6	63.5	63.8
경상북도	63.6	63.8	63.7	63.5	62.9	62.7	62.1
경상남도	60.9	61.4	60.5	60.3	60.5	60.9	59.6
제주도	69.2	68	68.3	68.5	67.7	67.6	66.7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충남의 경제발전 정도가 타 시도에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주택가격의 상승과 소비자 물가상승일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택가격과 소비자 물가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t;그림 5&gt; 충남의 주택가격 상승률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먼저 주택가격상승률을 살펴보면 2008년 전국 평균 2.08%와 비교하여 충남은 1.11%로 비교적 안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주택가격안정은 최근의 경제위기와 주택



수요의 감소로 나타난 아파트 미분양물량의 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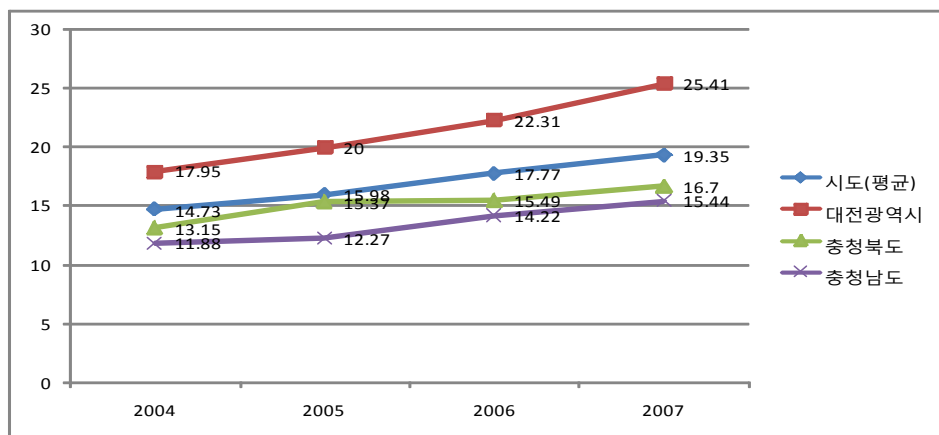
또한 경제활동의 증가는 소비자물가에 대한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2008년 전국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은 4.91%였으나 충남은 4.95%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인근 충북은 5.14%, 대전은 4.66%로 나타나 충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충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소비자 물가에 대한 충남도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 3. 주민복지 지표부문

민선4기 동안 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주민복지 지표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중 복지예산비중,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충남의 일반회계중 복지예산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15.44%로 전국 16개 시도중 13번째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인 19.35%에 비해 4%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의 25.41%와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인근의 충북과 비교해도 낮은 비중이었다.

<그림 6> 충남의 일반회계중 복지예산(사회보장)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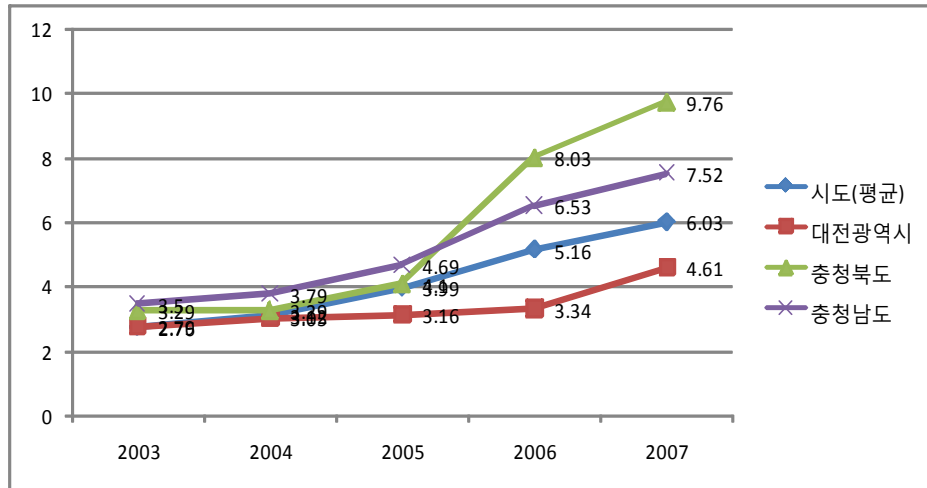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두 번째로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는 충남의 경우 7.52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03개소 보다는 높았지만 인근 충북이 9.76개소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육아 문제 및 출산과 관련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의 육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아 보육시설수를 살펴보면 인구 천명당 12.77개소로 전국 평균인 13.19개소 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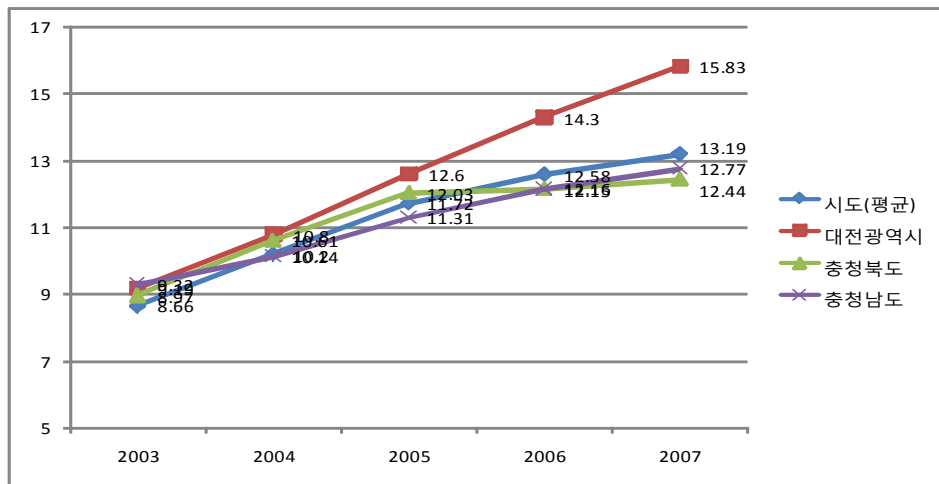
<그림 7>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이는 충남의 합계출산률이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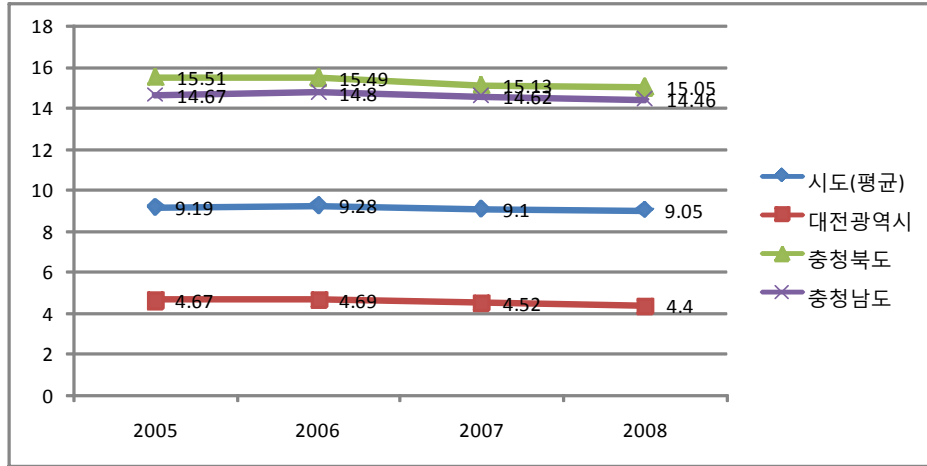
<그림 8> 유아(0-4세) 천명당 보육시설수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충남의 노령인구비율이 14.78%(2008)로 전국 11.5%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60세 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2008년 기준 14.46개소로 전국 평균인 9.05개소 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근의 충북 15.05개소보다는 적지만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개수의 추이를 보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개선이 향후 과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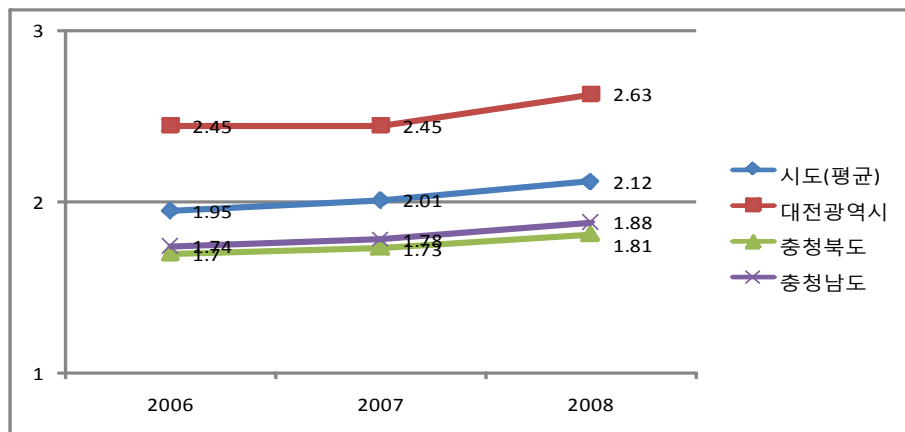
&lt;그림 9&gt; 노인(60세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의료복지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기 위한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전국의 평균은 2.63명으로 나타났고 충남은 1.88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인천 1.76명, 울산 1.75명보다 높지만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군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 개선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lt;그림 10&gt;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Ⅲ. 민선5기 출범과 충남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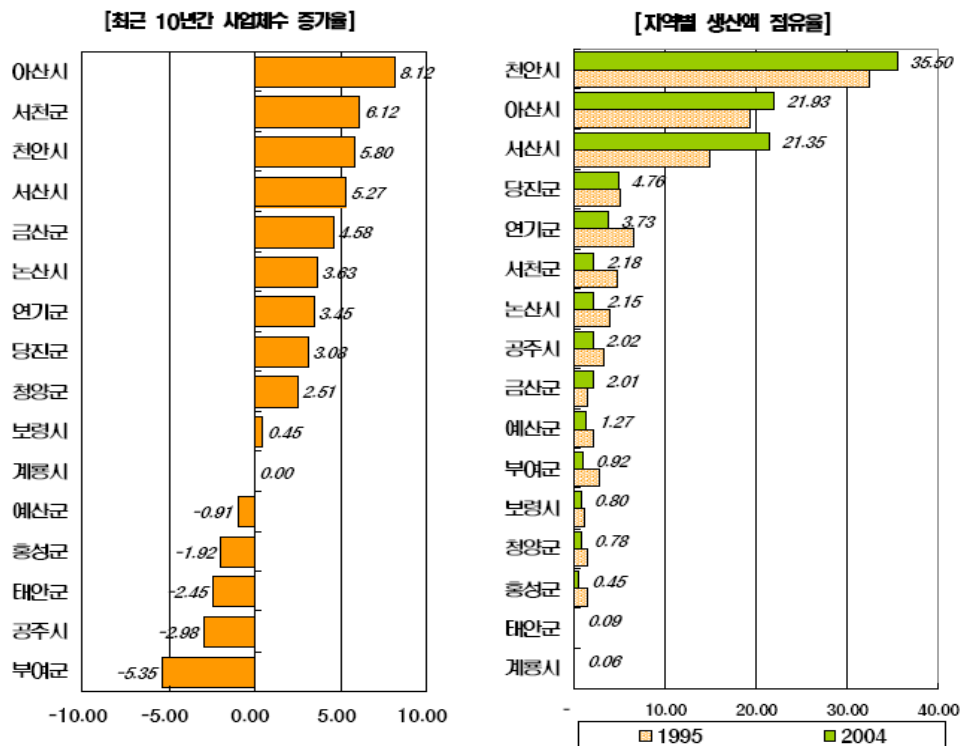
#### 1.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과제

충남은 2004년 수립된 「충청남도 제2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농축산바이오, 첨단문화 등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완제품의 조립 및 생산은 지역내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재·부품·장비 등의 제조업체가 해외 또는 수도권지역 등에 분포되어 집적의 효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일정부분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체의 규모나 재정규모가 취약하고 농축산 바이오의 경우 농업테크노파크,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등 거점을 통해 기술보급 및 사업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차 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문화산업은 천안·아산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산업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충남의 산업은 산업간 연계의 미흡, 그리고 특정지역의 집적화에 의한 균형적 발전의 미흡, 도내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심화가 나타나고 있어 민선5기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의 내실화 및 지역간 격차의 완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1> 지역별 사업체수 증가율 및 생산액 점유율 변화



자료 :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

두 번째로 충남의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과제는 지역인재의 유치 및 정주기반을 확보하는 과제이다. 현재 충남을 비롯한 충청권의 산업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의 유출이 기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충남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이는 일반 인력의 유입과 출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산업발전이 첨단기술 및 고급인력의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배출한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해서는 장기적으로 충남의 경제 및 산업발전에 있어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고급인력의 유출을 막고 충남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광역권내 고급인력(대졸이상)의 이동현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총대출 유출	지역 잔존율	수도권 유입률
수도권	4,492	119	94	127	113	63	22	5,030	0.89	0.893
충청권	287	1,346	28	90	19	29	1	1,800	0.75	0.159
호남권	179	29	1,648	8	17	5	2	1,888	0.87	0.095
대경권	231	65	15	2,297	248	29	3	2,888	0.80	0.080
동남권	93	6	3	68	1,852	4	4	2,030	0.91	0.046
강원권	200	18	10	13	13	487		741	0.66	0.270
제주권	20		7	2	3		317	349	0.91	0.057
총대출 취업유입	5,502	1,583	1,805	2,605	2,265	617	349	14,726		
총대출자 유출	5,030	1,800	1,888	2,888	2,030	741	349			
순대출 유입률	1.09	0.88	0.96	0.90	1.12	0.8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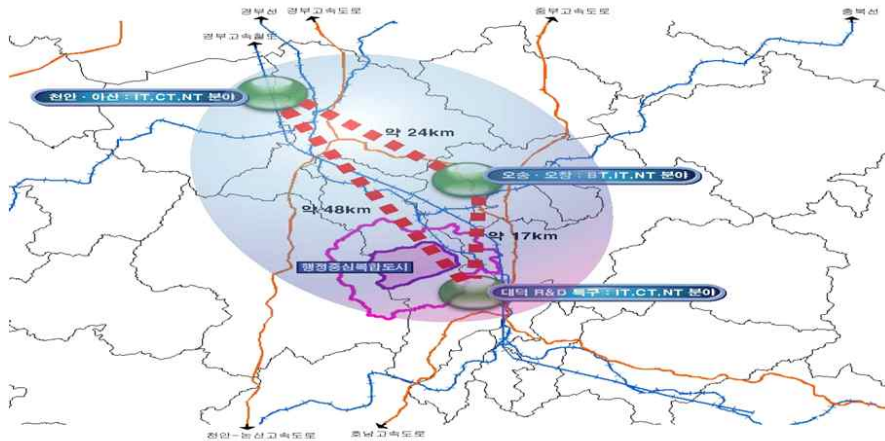
자료 : 산업연구원, 2009.

세 번째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선도산업추진을 통한 충청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충청광역경제권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선도산업은 New IT와 의약바이오 분야로 충남은 New IT와 관련된 디스플레이와 부품소재 분야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는 충남의 전략산업과 일치하고 있으며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하여 충남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세종시와 연계된 클러스터를 충청권 3개 지자체가 협조하여 지정하고 이를 충청권의 핵심 경쟁거점화하는 전략과 함께 천안·아산-세종시 지역이 충청권 클러스터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림 12> 충청광역경제권 핵심 클러스터



## 2.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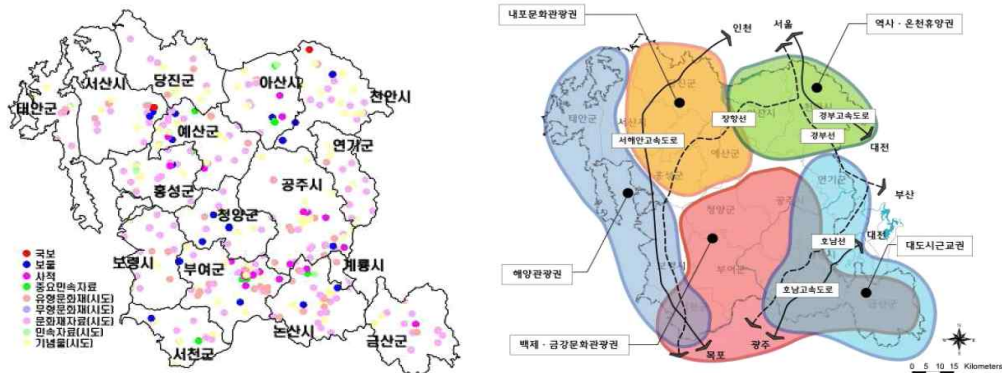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획기적 증진과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매력은 특색있는 지역의 창출로 이어져 전통산업과 함께 지역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이는 관광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수많은 과제들 중 첫째, 충남의 매력을 발산시키는 점들을 연결하고 이를 지장산업(地藏産業)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의 문화재나 특색있는 광경을 지역의 이야기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시설의 투자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그보다 더 낡은 시설이 생기면 경쟁력을 잃고 지역의 고민거리로 절락하는 사례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위한 가치의 전환을 통하여 충남만의 매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관광은 觀國之光의 준말로 지역의 관광은 지역의 빛을, 매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림 13> 충남의 지정문화재 분포 및 5대 관광권역



자료 :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두 번째 과제는 주거복지체계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거복지체계라는 의미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주민들의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즉 내가 사는 곳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더라도 다양한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충남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는 각종 서비스의 격차를 양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격차가 삶의 질의 격차로 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세 번째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차원에서 녹색성장과 친환경 도시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선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이 기업이나 산업, 그리고 대규모 개발에 의존하던 기존의 틀을 이제는 전환해야 할 것이다. 지속성장의 관점에서 도시의 발전의 개념을 건강한 도시, 무장애 도시, 녹색도시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이 그간 누리지 못했던 자유로운 보행의 권리, 청정한 음식물 섭취에 대한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등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권리보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3. 민선5기 단체장의 자질과 과제

1995년 풀뿌리 민주주의 기치를 내걸고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후 16년의 세월이 흘러 실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민선 5기로 성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는 정착-성숙되었다고 실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숙발전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제도, 중앙정부의 권력독점 등 지방의 발전이 저해되는 요소만을 논해서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성숙한 민선5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타하기 전에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노력을 단체장이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민선5기 바람직한 단체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충남의 발전에 대한 계획의 승계하고 이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비전 창출과 지위와 권한에 적합하고 부여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경제발전과 경제발전에 따른 열매를 지역에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균형적인 감각과 지역의 매력을 증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치역량과 행정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정치역량과 행정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1) 정치역량

민선5기 자치단체장이 가져야할 자질 중 정치역량이 우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선거과정은 후보공천에서의 갈등, 각각의 후보자와의 경쟁에서 나타나는 이념과 정책에 대한 갈등 등 매우 혼란한 상황을 조정하고 조율해서 지역의 발전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가능한 빨리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를 민선5기 자치단체장은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과 관련된 주민간의 갈등, 시민단체간의 갈등,

그리고 정당간의 갈등에서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중앙에 전달하는 동시에 세종시의 적절한 추진을 위한 정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방주민의 장래를 위한 이념과 철학을 가져야 하고 미래의 비전과 진로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소신있게 구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높은 정치역량을 필요로 하고 또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김안제, 2002 발췌 인용)

## 2) 행정능력

다음 요건은 행정능력이다. 모든 자치단체장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충남의 자치단체장의 자격으로서 핵심적인 것은 행정능력을 통하여 얼마나 효율적인 충남의 자치행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이상적인 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정책 및 계획수립 능력, 경영 및 관리능력, 조정 및 지도능력, 계획실천 능력 등을 고로 구비하는 것이지만 이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이를 통한 정책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열린 마음을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도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 3) 도덕성

최근 공직자들에 대한 부패척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은 공직자들의 부패와 관련된 한 신문의 사설이다.

「충남 논산시의 7급 공무원은 2년에 걸쳐 41억여 원의 예산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국세청의 국장급 간부는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 하여금 비싸게 사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6급 공무원은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36차례의 골프 접대와 뇌물을 받은 것이 적발됐다. 어제와 그제 이들 사이에 새로 불거진 공무원 비리들이다. 요즘 들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자고나면 터져 나오다시피 한다. 검찰이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 예산과 각종 보조금, 기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한 공무원은 696명이며 횡령 금액만도 1000억 원에 이른다. 그중에는 장애인수당 26억 원을 착복한 공무원과 군량미 3550가마(2억7000만 원어치)를 빼돌려 시중에 내다판 육군 원사도 있다. 얼마 전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신용카드 위장 가맹업체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고 금품을 받아오다 적발됐다(중략). 동아일보. 2009.11.19자 사설 : 자고나면 터지는 공직비리, 부패척결 무색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가져야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도덕성이다.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자 주민의 대표인만큼 당



연히 더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건전한 양식과 성실한 자세,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 화합하고 이해심이 깊은 인간성, 정직하고 청렴한 생활 등을 통하여 지역의 모범이 되는 사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도덕성은 정치역량이나 행정능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최근 불거진 공직부패뿐 아니라 선거직 단체장들의 부정행위의 적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IV. 결론

우리 손을 통해 선출된 단체장이 지역을 경영하는 경험이 20여년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이번 6월 선거를 통해 출범하게 될 민선5기는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소득 2만불 시대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 이제는 새로운 발전의 발돋움을 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충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발전이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성장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이제 같이 해결하고 수정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내륙의 저 발전, 지역간의 격차와 같은 문제들은 충남도청 이전과 세종시의 건설과 지역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통해, 그리고 모든 차원을 수렴하고 비전을 만들어낼 단체장의 성숙된 리더십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충남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일환(2004).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김동훈(1996). “민선자치단체장의 자질과 역할”, 대전충남포럼, Vol. 2.No.2.
- 김신복(2001). 「발전행정론」, 서울: 박영사.
- 김안제(2002). “2002 지방의 선택, 누구를 뽑을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자질”에 관한 세미나 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
- 배용수(2000). 「지방자치경영론」, 법문사.
- 이달곤(1994). “행정쇄신정책토론회,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 바람직한 민선단체장의 역할”, 행정쇄신위원회.
- 임수복(2002). “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정치리더십: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정치리더십”,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회의 보고서.
- 산업연구원(2009). 고급인적자원의 광역권 간 이동과 정책적 시사점.
- 정영운(2000). “민선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최정의(2006). “지방자치단체장 역할에 대한 실증 분석”,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충남넷, <http://www.chungnam.net>.
- 충청남도 재정공시자료, 2009.